

특집 코로나-19의 사회-공간 읽기(II)

팬데믹과 인류세 자연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간 너머'의 생명정치*

Anthropocenic Nature in the Pandemic:
Social Distancing and the 'More-than-human' Biopolitics

김준수** · 최명에*** · 박범순****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인류세적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는 치명적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이라는 '파국'적 상황과 함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인간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만들어진 '인간 없는 세상'의 단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인류세적인 현상이다. 코로나19 논의가 방역, 인권, 경제 등 인간 사회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비인간 세계,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미친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상품화를 중심으로 한 인간-자연 관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겪는 균열과 재조정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관광경관, 동물원,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병렬적으로 다룸으로써 코로나19에 따라 인간-자연 관계가 전개되는 다양한 모습들을 포착하고 탐색한다. 이론적으로는 최근의 생명정치 논의와 비인간 행위자 및 정동적 관계에 주목하는 '인간 너머' 경향의 정치생태학 논의를 결합함으로써 인간-자연 관계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간-자연 관계의 변화가 인간의 활동 감소에 따른 자연의 '회복'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자연 '통제'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라, 자연의 물질성과 인간 기획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보다 다면적인 차원에서 복잡하고 미묘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코로나19가 자연이 생육하고 번성할 계기를 제공했지만, 감염병 위기라는 응급상황이 방역과 경제를 목적으로 한 인

*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8R1A5A7025409)이자,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외우수 신진연구자 유치사업(KRF)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9H1D3A1A01070116)다. 이 논문을 심사하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감사드린다.

** 제1저자,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gal102@naver.com).

*** 교신저자,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연구조교수(myungae.choi@gmail.com).

****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센터장(parkb@kaist.edu).

간의 자연 개입을 강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코로나19를 통해 이 연구는 인류세 위기 속에서 인간-자연 관계가 변화하는 한 양상을 보여주고, 이를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요어: 코로나19, 인류세, 인간 너머의 정치생태학, 생명정치, 인간-자연 관계

1. 들어가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의 움직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와 같은 새로운 시대 담론의 출현이 이를 잘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시대 담론 논의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은 단순히 야생동물 거래와 접촉을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넘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할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촉발된 인간-자연 논의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의 경우 ‘도시 봉쇄(lockdown)’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인간 활동이 크게 감소하고, 그 결과 자연 세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Searle & Tumbull, 2020). 이 같은 인간 활동의 일시적 정지, 즉 ‘인류 정지(anthropause)’ 속에서(Rutz et al., 2020), 도심 야생동물 출현(BBC News, 2020.4.29), 대기 질 개선(Letzter, 2020), 야생동물, 식물의 개체 수 증가(Harrabin, 2020)처럼 ‘자연의 회복’, 혹은 ‘자연의 복수’와 같은 관점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코로나19가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을 통해 발생한 만큼, 야생동물 식육과 관련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관한 연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Maron,

2020). 국내에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뱀, 박쥐, 사향고양이, 천산갑 등 야생동물의 수입 규제를 긴급히 강화했다. 또, 환경부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가칭)을 조속히 설립하고,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따른 인간-자연 관계의 변화는 인간의 활동 감소에 따른 자연의 '회복'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자연 '통제'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 회복'-'자연 통제'의 이분법은 실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생성되는 인간-자연 관계의 다면적 변화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듯하다. 인간 활동이 감소하면서 대기 질이 개선되고 야생에 대한 간섭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 개입에 의존해 온 야생동물이나 동물원 동물들은 먹이가 줄어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해 벚꽃길을 갈아엎거나 과잉 생산된 농산물 판매를 독려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필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간-자연 관계의 변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최근의 인류세(Anthropocene) 논의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는 치명적 감염병이 전세계로 확산된 팬데믹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나 생물대멸종에 필적할 만한 '과국(catastrophe)'을 예감케 하는 행성적 응급 상황이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인간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한 현 상황이 일시적이거나 '인간 없는 세상'을 연상케 하는 실험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Rutz et al., 2020). 즉, 코로나19를 인류세에서 인간-자연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들여다보는 렌즈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얽힘을 강조하는 인류세 논의의 방법론적 에토스는 코로나19의 인간-자연 관계를 보다 새롭고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인류세라는 지질학적 용어가 최근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 용어가 마치 환경 문제의 대명사나 대멸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인류세는 인간 활동이 지구 표면을 바꾸는 결정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과학적 개념이지만, 인류세적 위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실천적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인간과 자연이 개별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고 상호형성적인 과정에 놓여 있음에 주목하고, 이들의 관계성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물질적, 사회적 관계 형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한다(최명애·박범순, 2019). 즉, 인류가 직면한 팬데믹과 같은 행성적 위기 앞에서, 자연의 복수 혹은 인간의 통제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얽힘에 천착함으로써, 이 위기의 기원과 미래를 새롭게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인간-자연 관계가 전개되는 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상품화를 중심으로 한 인간-자연 관계에 주목한다. 이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리되어 온 상품으로서의 자연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겪는 변화와 재조정의 과정을 탐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자주 언급되는 인간-야생동물 관계 논의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특히 관광 경관, 동물원,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병렬적으로 다룸으로써 코로나19에 따라 인간-자연 관계가 전개되는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는 데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채꽃밭 갈아엎기와 같은 경관의 물리적 변화 및 재조정, 동물원 유형에 따른 인간-동물 관계의 변화, 국가의 피해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이론적으로는 최근의 생명정치 논의와 비인간 행위자 및 정동적 관계에 주목하는 ‘인간 너머’ 경향의 정치생태학 연구를 결합한다. 이를 통해 비인간 존재가 코로나19 이후 인간-자연 관계의 변화 및 작동에 참여하는 모습과 생명정치적 의미를 살펴본다. 필자들은 코로나19가 자연이 생육하고 번성할 계기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염병 위기라는 응급상황이 방역과 경제를 목적으로 한 인간의 자연 개입을 정당화했음을 보일 것이다. 즉 코로나19가 인간의 건강과 부를 보호하기 위해 비인간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는 ‘인간중심적 생명정치’를 구현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강조하려고 한다.

2. ‘인간 너머’의 자연: 생명정치, 정치생태학, 국가-자연 논의를 중심으로

이 절에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인간-자연 관계 변화를 입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최근의 생명정치, 정치생태학, 국가-자연 논의를 살펴본다. 특히 비인간 존재가 인간-자연 관계의 형성과 작동에서 갖는 역할에 주목하고, 비인간 행위성과 정동적 상호작용을 발견하고 탐색하는 이른바 ‘인간 너머’의 연구 경향에 집중한다. 비인간 행위성은 인간만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온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식물과 사물 같은 비인간 존재에게도 있음을 강조하며, 정동(affect)은 인간 및 비인간 존재의 신체간의 상호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리킨다(최명애, 2018).¹⁾ 비판적 인류세 연구자들은 현재의 환경생태 위기의 원인을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한 인류의 활동에서 찾으면서,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해 사유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필자들은 비인간 존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과 상호 작용하며 함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 너머’ 경향의 연구가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인류세의 위기를 이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자 하는 인류세 연구의 탈인간중심주의적 경향과 조응한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인류세 자연(Anthropocenic Nature)의 인간-자연 관계를 탐색하는 이 논문에서 최근의 ‘인간 너머’ 연구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푸코의 생명정치는 근대 자유주의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통치의 전략과 성격이 변화했음에 주목한다(Foucault, 1978; Burchell et al., 1991). 과거에는 군주가 법률이나 처벌과 같은 사법적 기제를 통해 ‘개인’을 ‘죽게 하는 것’에 주력했지만,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사법적 기제 뿐 아니라 다양한 규율, 조절 기제를 통해 ‘인구’를 ‘살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생명정치의 목적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구별하고 제거하는 데서, 근대 자본주의

1) 정동이 신체와 신체를 연결하는 강력한 에너지라면, 감정이나 기분은 정동이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본다 (Pile 2011).

국가 건설을 위해 국민의 건강, 복지, 부를 증진하는 것으로 확장된 것이다. 기존의 생명정치 논의는 통치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인간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최근의 사회과학자들은 이를 비인간으로 확장하고, 인간(e.g. 국가, 자본)과 비인간(e.g. 동물, 생태계, 바이러스, 세균, 유전자) 관계의 방식과 성격을 탐색한다(Rajan, 2006; Rutherford, 2013; Srinivasan, 2013; Asdal et al., 2016; Hinchliffe et al., 2016; Porter, 2019). 로리머와 드리센(Lorimer and Driessen, 2013a)이 인간-동물 연구를 통해 정리한 것처럼, 축산, 보전, (동물)복지, 방역 등이 인간-자연 관계에서 작동하는 대표적인 생명정치의 형태들이다.

생명권력은 상이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전략을 통해 인간-자연 관계를 새롭게 규정한다. 예를 들어 방역의 경우, 통치의 대상은 질병(e.g. 조류독감, 구제역)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동식물, 또는 인간 및 동식물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며, 권력은 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 즉 ‘죽임(to take life)’을 통해 작동한다. 한편 축산의 생명정치에서는 값싸고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으로, 가축을 (도살할 때까지) 건강하게 길러내는 ‘살림(to make life)’이 전략적으로 수행된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산업 사회에서는 동물의 신체와 부산물 뿐 아니라 유전자, 이미지, 생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적, 무형적 측면이 생명공학, 반려동물 산업, 관광 등을 통해 이윤 축적에 활용된다. ‘살아있는 자본’(Shukin, 2009)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빼앗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이들 자본의 ‘경제적 생명(economic life)’을 육성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물을 매력적인 관광 대상으로 브랜딩하거나,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비인간의 경제적 생명에 개입하는 전략들이 될 것이다.

한편, 힌츨리프 등은 다양한 층위의 생명정치가 함께 작동하면서 상이한 정치적 관계들이 공존, 경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Hinchliffe et al., 2016; Lorimer and Driessen 2013a). 예컨대 닭은 동물복지 축산의 대상으로 건강하게 살게 해야 하는 ‘살림’의 대상이지만, 조류독감의 관계망 속에서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죽임’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생명정치의 마찰(friction)에 주목한 이들 연구자들은, 죽임과 살림의 이분법을 벗어나 ‘코스모폴리틱

스(cosmopolitics)' 또는 '살아있는 생명 정치(livelier life politics)'처럼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교류에 주목하는 공존의 방식들을 모색한다(Asdal et al., 2016).

신유물론 경향의 연구자들은 인간-동물, 인간-자연의 생명정치에서 비인간 생명의 행위성이 갖는 역할에 주목한다(Whatmore, 2002). 즉, 비인간의 행위성이 결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간이 주도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자연 생명정치(e.g. 축산, 방역)의 작동이 균열되거나(Cloke and Perkins, 2005; Nam, 2014) 강화되거나(Barua, 2016; 최명애, 2020)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Lorimer and Driessen, 2013b). 예컨대 돌고래가 나타나지 않아 고래 관광이 실패하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한 국가의 방역망이 멧돼지의 이동 경로 다양화로 교란되는 식이다(김준수, 2019b). 이처럼 비인간의 행위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비인간을 생명정치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방식으로 생명정치의 형성과 작동에 기여하는 비인간 '파트너'로 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인간 중심적으로 사유하고 기획해 온 생명정치가, 실제로는 다양한 비인간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간 너머'의 생명정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인간 존재의 행위성과 정동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은 최근의 정치생태학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경관(landscape) 연구는 전통적인 경관의 사회적 구성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를 경관의 정동적, 물리적 차원과 연결하려는 시도들로 발전해 왔다. 신진숙(2018)은 한국의 4대강 개발 저항 담론의 정동적 기제들을 분석함으로써 환경 개발 담론과 보존의 서사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정동적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서사와 담론이 경관을 실제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저항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즉, 경관의 정동적 기제들이 경관 서사와 담론 작동에 개입하면서 경관을 새롭게 재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준수(2019a)는 경관의 정치생태학에서 담론과 서사를 넘어 경관의 물질적 측면이 갖는 역할을 강조한다. 경관 그 자체의 물질성이 경관의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경관을 재편하고자 하는 인간의 개입과 연결되면서 그 결과로 경관이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다는 점을 강

조하는 것이다. 그는 한강 개발 과정에서 국가가 설치하고 배치한 인프라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불러내며 새로운 형태의 물-사회적 영토를 형성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경합과 조응 또는 대립의 과정에서 지금의 물 경관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물 경관을 ‘인간 너머의 물 경관(more-than-human waterscape)’으로 개념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논의되어 온 경관에 대한 분석을 경관의 물질적, 생태적 특성과 교차시킴으로써 최근의 경관 정치생태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경관이 사회적으로만 구성되는 것만이 아니며, 이 과정에 경관의 물질적 특성이 개입하고 경합하면서 경관의 의미와 작동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Heynen, 2014; Hastrup, 2013).

‘인간-동물’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 연구 또한 경관 연구와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주류 정치생태학에서 동물은 인간의 개입이 이뤄지는 수동적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자연의 상품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주를 이뤄왔다. 한편, 최근의 동물지리학자들은 동물의 행위성에 주목하고, 비인간 존재의 역할이 가져오는 인간-동물 관계의 균열 양상에 주목해 왔다. 파일로와 윌버트(Philo and Wilbert, 2000)는 동물의 공간을 동물원, 실험실, 농장처럼 인간이 ‘동물이 있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지정한 ‘동물 공간(animal spaces)’과, 이 공간을 벗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동물들의 행위성이 드러나는 ‘야수 공간(beastly places)’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동물 공간’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질서화와, 이를 ‘야수 공간’으로 바꿔내는 동물의 행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국내 인간-자연 연구자들은 파일로와 윌버트가 시사하는 ‘인간의 통제’와 ‘동물의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 인간-동물 관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측면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황진태 등(2019)은 동아시아 발전주의 맥락 속에서 동물카페와 같은 유사동물원이 가진 문제점과 그 공간에서 생성되는 인간-비인간, 비인간-비인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특히 단순히 동물 보호와 학대의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비

인간 관계가 생성되고 있음을 포착하고, 동물카페를 인간 및 비인간 종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코스모폴리틱스’의 공간으로 바라본다. 최명애(2020)는 한국의 돌고래 관광 연구에서 남방큰돌고래의 행위성이 관광 프로그램의 정치경제학과 결합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인간과 고래의 정동적 상호작용이 인간의 관광 프로그램의 축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인간과 비인간 돌고래의 행위성의 결합이 협력적이거나 저항적이거나 혹은 전혀 무관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인간의 동물에 대한 상품화 연결 과정이 순조롭게 일어나거나 충돌하는 형태로 일어날 수 있으며, 그 행위들의 결과들을 쉽게 예측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인간-자연 관계의 변화를 특히 한국의 맥락 속에서 포착하기 위해서 필자들은 생명정치, 인간 너머 경향의 정치생태학과 함께 ‘발전주의 국가-자연’ 논의를 주목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K방역은 국가 영역의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통치 전략의 관성은 한국의 발전국가 경험으로부터 전개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의 동원과 개입, 국가 선택성의 작동을 특징으로 하는 발전주의 국가의 전략은 자연에 대한 통치에도 적용되면서 ‘발전주의 자연’이라는 독특한 형태와 자연과 자연의 관리 과정을 양산해 냈다(황진태·박배균, 2013). 국가 영역의 자연에 대한 집중적인 포섭 전략은 국가의 자연에 대한 틀 짓기(framing), 영역화(territorialization), 중앙집중화 과정(centralization)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자연의 생태적 물리적 특성을 단순화하고 ‘추상화된 자연(abstracted nature)’을 양산해 낸다(Whitehead et al., 2007).

국내 연구자들은 한국의 발전국가 맥락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댐 건설, 하천 정비 사업 등의 사례를 통해 탐색해 왔다(황진태, 2019a; 김준수, 2018; 2019a). 특히 최근에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맥락 속에서 비인간 행위자를 국가의 축적 전략과 헤게모니 프로젝트에 개입시키고 이를 통한 국가 형태의 변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황진태, 2019b). 이 논의들 속에서 ‘국가의 선택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위치하게 된다. 자연에 대한 국가의 선택성은 ‘무엇을 살게 하거나 죽도록 두거나, 무엇을 죽도록 하

거나 살도록 두는' 생명정치의 과정 속에서 결정된다(Lemke et al., 2011). 이들 연구자들은 국가 영역의 관료 합리성, 혹은 경제적 합리성의 문제 너머에서 자연의 물질적 특성이 국가의 생명정치 과정 속에 개입하고 있다고 본다. 즉, 국가 영역의 생명정치를 인간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과 비인간 존재의 행위성 및 정동적 역할과의 결합 통해 형성되고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의 흐름들은 '코로나 방역'이라는 국가의 프로젝트에서 자연의 물질적 특성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으며, 선택과 배제라는 생명정치적 기획이 행사되는 모습을 살펴보는 본 연구에 유용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다.

3. 코로나19에 따른 '인간-자연' 관계성의 균열과 재조정

이 장에서는 코로나19에 따라 인간-자연 관계가 균열되고 재조정되는 모습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탐색한다. 봄꽃 축제, 동물원, 동물카페, 산천어 축제, 향어 팔아주기,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 등 코로나19 이후 전개된 다양한 인간-자연 상품화 관계 조정의 지점들이 포착됐으며, 이를 관광 경관, 동물원, 농수축산물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묶었다. 이 같은 다양한 사례의 병렬적 나열은 코로나19이후 인간-자연의 상품화된 관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라는 본 연구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각 사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해 둔다.

1) 봄꽃 경관 같이엮기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식적인 정책 기조로 삼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과 밀접접촉 최소화 방안과 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등을 전파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사회 집단 감염으로 증가하면서 매년 3~5월

〈그림 1〉 여의도 윤중로 교통 및 사람 이동 제한 조치



출처: 좌) 서울시 홈페이지, 우) 필자 촬영.

까지 열리던 전국의 봄꽃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었다. 서울 장미축제, 여의도 봄꽃 축제, 진해 군항제, 고양 국제 꽃 박람회, 군포 철쭉 축제, 제주 유채꽃 축제,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등 3월부터 시작되는 봄꽃 축제들을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상춘객과 관광객들이 봄꽃을 구경하려고 모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 확진자 접촉 등의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였다. 또한 단순히 축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방문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전면 출입 금지나 꽃 경관 자체를 없애 버리는 등의 경관 재조정 움직임들도 일어났다.

대표적인 서울의 봄꽃 축제인 여의도 벚꽃 축제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행사들을 불러모아온 축제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서울시는 윤중로 자체의 출입을 제한시켰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4월 2주간 여의도 윤중로 출입과 통행을 금지시키고, 이곳을 경유하는 7개의 버스 노선도를 바꾸고, 지하철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시키는 조치들이 이어졌다(〈그림 1〉).

이와 같은 공간적 재조정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 정책 목표를 위해 꽃과 인간의 정동적 관계를 단절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봄꽃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피어난다. 파스텔톤의 색감과 달콤한 향, 꽃

이 한 곳에 가득 모여 있는 모습은 이를 가까이에서 보고, 향을 맡고, 봄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의 신체적 반응을 유도한다. 꽃과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관광객들은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음을 실감하는 한편, 새로운 생명의 깨어남과 이에 수반되는 에너지를 공유하게 된다. 봄꽃 축제는 이 같은 봄꽃과 인간과의 밀접한 신체적, 감정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정동적 기제로 기능한다. 특히 봄꽃 축제가 매년 열리는 이벤트로 정례화되면서, 봄꽃이 만개한 풍경은 자기도 모르는 새 꽃에 다가가는 인간들의 전인지적인(pre-cognitive)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런 상황에서 봄꽃 축제의 취소와 통제는 꽃과 인간의 신체적 대면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인파가 모이는 것을 막음으로써 방역에 기여한다. 아울러, 봄꽃 축제를 방역의 위협으로 새롭게 개념화함으로써, 봄꽃 경관을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 경관’으로 의미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봄꽃 경관으로의 접근 자체를 막음으로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행되고 있음 강조하고, 벚꽃의 만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코로나19의 방역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행하기 위해 축제를 취소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리적 경관 자체를 재조정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비슷한 시기 전국적으로 만개하는 유채꽃의 경우 꽃밭 자체를 갈아엎는 경우가 많았다. 강원도 삼척을 시작으로 제주도, 부산 등의 대표적인 유채꽃 관광 명소들은 상춘객들이 몰리는 일을 방지하고자 꽃밭 자체를 갈아서 유채꽃 경관 자체를 없애버렸다. 비슷한 시기 튼リップ 축제의 튼リップ 꽃봉오리를 뽑아내기도 했다(〈그림 2〉).

…… 강원도 삼척시와 제주도 서귀포시도 같은 이유로 유채꽃밭을 갈아엎은 바 있다. 강원 삼척시는 근덕면 상맹방리 옛 7번 국도변에 축구장 넓이의 7.8배인 5.5ha 규모로 조성돼 있는 유채꽃밭을 모두 갈아엎었고, 제주도 서귀포시는 8일 트랙터 4대를 동원해 가리시 녹산로 일대 유채꽃 길 약 10km와 조랑말타운 인근에 조성된 9.5ha 규모의 유채꽃 광장 내 유채꽃 등을 제거했다.

〈그림 2〉 유채꽃밭 갈아엎기와 튤립 꽃봉오리 제거



출처: 좌) YTN 2020년 4월 3일 자, 우) KBS 2020년 4월 11일 자.

…… 부산시는 유채꽃밭 76만㎡ 전체를 주말까지 모두 갈아엎는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2020년 4월 10일 자).

……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안 입자도 대광해변 옆 튤립 단지 내에 최근 형형색색의 튤립꽃이 만개했다. 꽃이 피면서 해변은 아름답게 물들었지만, 신안군과 주민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 축제를 취소한 데 이어 8일 꽃을 잘라버렸다. 꽃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들까 봐 내년을 기약하며 아쉽지만, 선제 조치를 한 것이다……(연합뉴스, 2020년 4월 8일 자).

봄꽃 경관 자체를 갈아엎는 행위는 코로나19 이전 매년 이어져온 인간과 자연의 정동적 얽힘 과정을 변형시킨다. 봄꽃 경관은 꽃밭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지자체의 기획과 꽃의 생태가 얽혀 만들어지는 인간-자연 생성물로 볼 수 있다. 유채꽃밭을 지역 행사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매년 9월쯤 다음 해 봄꽃 축제를 위해 씨앗을 파종한다. 이듬해 봄엔 꽃이 피어나고, 꽃이 만개한 풍경은 관광객들을 부르며, 봄꽃 축제가 관광객과 꽃의 신체적 대면을 가능케 하는 이벤트로 기능한다. 축제가 끝난 뒤 꽃이 져서 떨어지고 나면 지자체는 꽃밭을 다시 갈아엎는다. 내년 행사를 위해 일부 씨앗을 채집하고,

개양비귀와 같은 여름 개화 꽃씨를 심거나, 이듬해 봄꽃 축제 준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른 용도로 부지를 활용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지자체와 꽃이 매년 재생산해 온 사회-생태적 사이클에 균열이 발생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축제 행사들이 취소되었지만, 과중된 꽃씨들은 개화하면서 봄꽃 경관을 만들어냈다. 꽃의 만개가 인파를 부르는 일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은 예년보다 빨리 꽃밭 갈아엎기를 실시했다. 개화가 한참 진행 중인 시기에 유채꽃밭 경관을 갈아엎어서 경관을 재조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수행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경관 재조정은 봄꽃이 생성하는 정동적 경험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정동적 기제를 제거함으로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인간들의 정치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출산하는 동물, 굶주리는 동물

동물원은 직접적으로 인간과 동물이 오락적, 상품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바라볼 수 있다(Anderson, 1995; Fraser, 2009). 동물원을 매개로 이뤄지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는 동물을 관람하는 여가와 교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생태 프로그램도 함께 작동하고 있다(Clayton et al., 2011). 전형적인 ‘동물 공간(animal spaces)’으로 여겨지는 동물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인간-동물 관계성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동물원의 형태와 운영 방식, 즉 국가 주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곳과 민영화된 사립동물원, 그리고 유사동물원 형태인 동물카페 등에서 상이한 형태로 전개된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은 대략 110개소 정도이다(이형주 외, 2020). 이들 중 지자체 혹은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공단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공영동물원’은 전국적으로 18곳이 운영되고 있다.²⁾ 전국

2) 공영동물원에 속하는 동물원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부산시 해양자원사박물관,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대구시 달성공원 동물원, 대전시 오월드, 울산대공원 동물원, 광주시 우치동물원, 서울대공원, 청주동물원, 아산시 생태곤충원, 전주동물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야

〈그림 3〉 민영동물원 굶주린 사자 보도



출처: 좌) 곤충 동물 전문 유튜버 '정브르' 화면 캡처, 우) 2020년 4월 29일 MBC NEWS 보도자료.

의 동물원들은 코로나19 이후 관람객과 동물, 관람객 서로 간의 접촉 위험성을 이유로 자체적인 휴장 또는 휴관을 실시했다. 개장한 때도 관람객 숫자가 급감하면서 동물원들은 운영상의 변화를 경험했다.

먼저 공영동물원을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월 22일과 23일 각각 임시 휴관에 들어간 광주시 우치동물원과 전주동물원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사육장을 만드는 등 재정비 시간을 가졌다. 광주 우치동물원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인 재규어와 갈색꼬리감기원숭이, 무플런 산양³⁾ 등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소식’으로 그려졌다(NEWS1, 2020년 3월 18일 자). 또한 전주동물원에서는 ‘잔나비의 숲’이라는 새로운 우리를 증설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다람쥐원숭이 전용 사육장을 새로 건설했다(NEWS1, 2020년 3월 27일 자). 이

생동물원, 함평 양서파충류 동물원, 해남 조류생태관, 진양호동물원, 창녕 산토끼노래동산, 제주도 자연생태공원, 국립생태원 등이 있다(이형주 외, 2020: 30).

- 3) 재규어(*Panthera onca*)는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록되어 있으며, 갈색꼬리감기원숭이(*Cebus apella*)의 경우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고, 무플런(*Ovis orientalis*) 역시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 의해 취약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와 같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사육 환경 개선’ 등은 ‘인간의 관리상의 필요’ 뿐 아니라 동물의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속에서 이들의 행동과 습성이 보다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와 관람, 보존이라는 동물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동물원에서 이와 같은 시설 재설비와 탄생 담론이 생성된 것은 아니다. 민영동물원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동물들의 굶주림과 죽음의 담론이 확산되었다. 독일 뮌헨의 노이뮌스터 동물원(Neumünster Zoo)은 코로나19로 관람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동물원의 약 700여 마리의 동물들을 차례로 도살하여 다른 동물의 먹이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2020년 4월 15일 자 The New York Times). 이와 같은 상황은 국내 민간운영 동물원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코로나19가 한참 확산하던 4월 대구의 한 실내동물원에 관람객이 줄자 동물들에게 제공할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멸종위기종 수달을 포함해 동물 13마리가 폐사하고, 사자의 먹이를 70% 정도 줄여 갈비뼈가 드러난 모습 등이 일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공개됐다(그림 3)).

동물원에 있는 동물의 비참한 모습이 알려지자 ‘죽음의 공간 동물원’, ‘동물 구조 필요’ 등과 같은 동물원 존재 자체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불거졌고,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동물들에게 긴급하게 먹이 등을 제공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났다. 특히 갈비뼈가 드러난 사자의 모습을 계기로 동물 애호 카페를 중심으로 대구의 사립동물원으로 ‘생닭 기부하기 운동’이 시작됐다.

…… 동물원 측이 정부와 시를 상대로 지원 신청을 준비하는 사이, 동물들을 위한 기부 릴레이가 시작됐다. 우선 곤충·동물 전문 유튜버 ‘정브르’가 생닭 100마리를 기부하는 영상을 지난달 22일 올렸다. 정브르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부했다”며 트럭에 닭을 싣고 동물원을 찾았다. 영상이 퍼지자, 동물 애호가들도 동참했다. 한 시민은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생닭 업체를 통해 50마리를 배달했다”며 사진을 올렸다. 최근 동물원에 기부된 닭만 400여 마리다. 앙상했던 사자 2마리는 기력을 찾는 중이다……(중앙일보, 2020년 5월 1일 자).

이와 같은 사회적 움직임의 확산은 ‘끓주리는 동물’, ‘죽어가는 동물’들이 불러낸 새로운 형태의 정동적 힘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전파된 앙상하게 여윈 사자의 영상이 동물 애호가들의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사자의 아사를 막아야 한다는 긴급함의 분위기를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했다. 끓주린 사자 영상이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자의 먹이를 구입해 배달하는 인간의 행위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이 과정은 사자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동물인 닭의 생명을 대량으로 희생하는 행위를 수반하고 있다. 같은 동물이라도 동물원 육식 동물의 생명과 생닭의 생명 사이에서 인간 행위자의 선택과 배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연민으로 결합한 인간-동물의 생명정치에 배태된 복잡함과 모순을 극적으로 드러낸다.⁴⁾

한편, 야생동물들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유사동물원, 즉 동물카페는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위험공간’으로 재편됐다. 최근 빠르게 증가한 동물카페는 2020년 현재 전국 64곳이 운영 중이며, 라쿤이나 미어캣과 같은 작고 귀여운 외모의 야생 동물을 주로 사육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우후죽순 생긴 야생동물 카페입니다. 야생동물 카페에서는 라쿤(미국너구리), 미어캣, 왈라비, 북극여우 등이 사람과 한데 모여 놀입니다. 라쿤의 침 같은 분비물, 분노 등은 아무리 청결하게 시설을 관리해도 곳곳에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쓰다듬고 뒹굽니다. 야생동물 카페가 한국판 ‘바이러스 팬데믹의 진원지’가 될 수 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 전국에 64개의 야생동물 카페가 성업 중입니다. 2017년 35곳이었는데, 2년 만에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국내 야생동물 카페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라쿤(미국너구리)은 광견병 바이러스의 숙주입니다. 광견병 바이러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므로 …… 야생동물 카페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곳 또한 바이러스의 집탕이 될 수 있으니까요(한겨

4) 필자들은 사자와 생닭을 둘러싼 생명정치의 복잡성을 지적해 주신 두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레, 2020년 4월 9일 자, 강조는 필자).

이전에도 제도적 틈새를 통해 형성된 동물체험카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물단체를 통해 많은 부분 지적되었다(황진태 외, 2019).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인수공통전염병이 존재하며, 야생동물과 인간, 야생동물 중 상호 간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최태규 외, 2019). 특히 동물체험카페와 같은 유사동물원은 야생동물을 만지며 노는 행위를 통해 인간과 야생동물의 밀접한 신체적 접촉을 상업적으로 제도화한 공간이다. 또, 야생동물의 이력이 엄격히 관리되는 동물원과 달리, 사육 중인 야생동물의 번식, 수입, 예방접종 등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병원균을 보유한 야생동물이 동물카페에서 사육되다 관람객과의 접촉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통해 동물카페는 전염병의 감염 및 확산 경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새롭게 이해된다. 기존의 유사동물원 관리 문제 지적과 더불어 전염병이 확산될 수도 있는 공간으로 인지되면서 코로나19 이후 동물카페와 같은 유사동물원에 대한 규제와 폐지론이 보다 큰 힘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코로나19 이후 동물원의 ‘인간-동물’ 관계성은 동물원의 운영 방식 뿐 아니라 전시 동물 및 공간의 물질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영동물원의 경우, 지자체 혹은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휴관 이후에도 인적, 물적 자원의 유입이 이루어졌다.⁵⁾ 이와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휴장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공영동물원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 시기’, ‘시설 정비 및 확충’ 등과 같은 일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동물’의 관계성의 지속적인 확장과 동물원 시설의 개선 등이

5) 물론 공영동물원들 중에서도 지자체 소속의 동물원의 경우 관리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동물관리의 전문성 문체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한겨레》, 2017년 10월 23일 자).

이어졌다. 그러나 민영동물원의 경우 대부분 관람객의 입장료를 바탕으로 시설이 운영, 유지되기는 곳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직접적인 시설 유지와 동물 관리의 문제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민영동물원의 동물들을 ‘구조’하거나 ‘먹이 기부’ 등의 사회적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한편, 체험 동물원과 동물카페와 같은 유사동물원은 야생동물과의 ‘위험한 접촉 지대’로 자리하게 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새로운 감염 경로’로 ‘없어져야 할 공간’으로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상이한 사회적 담론화 과정은 각 동물원을 구성하고 있는 ‘동물종’의 물질적 특성과도 관련돼 있다. 공영동물원이 강조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그 대상이 재규어, 갈색꼬리감기원숭이, 다람쥐원숭이 등과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과 관련돼 있다. 상시적으로 관람객에 노출돼 있던 이들 동물들이 관람객 감소와 노출 감소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됐으며, 희귀종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종의 특성에 맞는 동물원 시설 확충이 이뤄졌다. 민간동물원에서 일어난 동물 폐사 사건과 먹이 감소도 인간의 시설 운영 문제와 더불어 대량의 먹이를 필요로 하는 사자와 같은 종이 사육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유사동물원들 역시 라쿤이나 미어캣과 같은 동물들의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 매개 동물과의 접촉 가능성과 이를 통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이 위험 담론 확산 과정에 결부된다. 이처럼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관계 속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함으로써 각각 다른 형태의 동물원에서 상이한 형태로 인간-동물의 관계가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코로나19 피해 능가 살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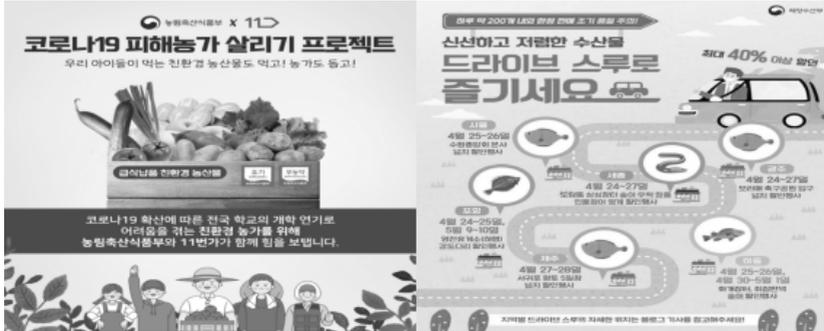
한국 특유의 ‘발전주의 자연’의 맥락 속에서 나타난 변화도 존재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3월 개학이 연기되고, 각종 축제와 회식, 외식 등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농수축산물 생산과 유통을 둘러싼 인간-자연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상고온으로 두 차례 연기되었던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는 2월 코로나 확산으로 결국 대부분의 축제 기간을 제대로 열지 못했다. 그러면서 산천어 축제를 위해 길러진 산천어에 대한 수요도 급감해 수급되지 못한 산천어의 처리를 두고 문제가 발생했다. 화천군은 전국 생산량의 약 90%에 달하는 180톤 정도의 산천어를 매입하였지만 약 43톤 정도의 산천어를 폐기처분 하게 되었다(KBS NEWS 보도자료, 2020년 3월 30일 자). 납품되지 않은 산천어 30톤 정도도 추가 매입이 불가능해져 물빠기 방식으로 전량 폐기 처분하였다. 산천어가 육식성 어종으로 일반 하천에 방류할 경우 생태적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 매입해 폐기처분한 것이다. 한편, 내수면 양식 어업을 통해 생산되는 향어는 주요 소비처인 대구와 경상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위기를 겪었다. 12월에서 3월이 출하 시기인데, 같은 시기 코로나19가 대구에서 빠르게 번져가면서 출하되지 못한 것이다. 양식장에서 계속 사료를 공급받은 향어는 적정 출하 무게를 초과하면서 한 때 폐기 처분의 위기에 처했으나, 지자체의 ‘향어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판매 활로를 찾았다.

산천어나 향어 모두 양식 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자연물들이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정치경제적 변화 속에서 상이한 물질적 특성들이 발현된다. 산천어(*Oncorhynchus masou*)의 경우 하천의 저서동물을 포식하는 특성과 양식으로 길러진 산천어의 회귀능력 및 유전자 교잡의 가능성 때문에 일반 하천에 방류가 불가능해졌다. 화천군에서 가공육 및 비료 등으로 일부 납품하기도 하였지만, 그 물량에도 한계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납품하지 못한 산천어 대부분을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반면 향어의 경우 주요 소비처인 경상도가 코로나19 확산 거점이 되면서 납품이 어려워졌지만, 지자체의 향어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 등으로 편입되면서 판매활로를 이어갔다. 이 사이 계속해서 사료를 공급받은 ‘민물의 돼지 향어’는 적정 출하 무게를 초과하면서 비육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정치경제학적 프로젝트로 진입하면서 ‘상품으로서의 자연’으로 생산된다.

향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출하시기를 놓친 각종 농수축산물의 판매

〈그림 4〉 국가 기구의 농어촌 살리기 프로젝트



출처: 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활로를 위해 국가 기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들이 전개되었다(〈그림 4〉). 학교 급식으로 재배돼 납품될 예정이었으나 개학이 연기되면서 판매가 중단된 농축산물과 적절한 출하시기를 찾지 못한 수산물 등이 대상으로, 중앙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잇달아 다양한 ‘코로나 피해 농가 살리기’, ‘농축수산물 팔아주기’ 등을 통해 소비 순환을 유지하는 데 앞장섰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산업 분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인 동시에, 각 자연물이 지닌 물질대사 과정을 인간의 정치경제적 순환의 과정에 일치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국가의 개입을 통해 사회-자연의 물질 순환 대사(metabolic process)를 촉진함으로써 ‘상품으로서의 자연’이 시차 없이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수축산물이 출하시기를 놓쳐 지나치게 비육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함께, 상품성이 다소 떨어진 농산물을 다시금 상품순환 과정에 포함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 같이 상품관계 순환의 촉진이 항상 국가의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는 않으며, 산천어의 경우처럼 ‘처분할 수 없는 자연물’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폐기 처분이 이뤄지기도 했다. 물론, 상품순환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수매나 산지폐기처분 등의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국가 개입 역시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촉발한 인간-자연의 물질적 순환 과정에 대한 성찰과 주목보다는, 소비 촉진과 판매활로 개척 등과 같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인간 너머’의 생명정치의 인간중심적 회귀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인간-자연 관계가 전개되는 몇 가지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 관광, 쇼핑 등과 같은 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한이 이뤄졌는데, 이런 제한은 인간의 행위에 국한된 것이기에 동식물과 같은 비인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의 외부에 위치하며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벚꽃이나 유채꽃의 개화에서 보듯 비인간 식물들은 인간의 기획과 무관하게 자신의 생태에 따라 피어났고, 인간의 간섭이 비약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번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휴관 중인 동물원 동물들이 출산한 것이 그 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비인간 존재들이 타고난 생태와 습성을 적극적으로 발현할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어 ‘방역’과 ‘경제’를 목적으로 한 인간의 개입이 이뤄졌다. 인간들이 벚꽃과 유채꽃을 보기 위해 모여들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에 실패할 것을 우려한 지자체들은, 이 같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만개한 식물들을 갈아엎었다. 즉, 방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번성한 비인간 식물을 ‘죽게(to take life)’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비육한 향어나 농작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로를 긴급히 제공함으로써, 이들 비인간의 ‘상품으로서의 생명(commodity life)’이 죽는 것을 막고, ‘살게(to make life)’ 하는 데 주력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인간-자연 관계는 인간의 자연(e.g. 바이러스, 야생동물)에 대한 전일적 통제, 또는 인간의 간섭이 사라져 자연이 회복된다는 일반적 인 이분법적 상상과 크게 다르다. 자연의 행위성이 일부 발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은 다양한 형태로 자연에 개입한다. 코로나19의 인간-자연 관계

에서 권력은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형태로 작동해 비인간 생명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로 생성된 인간-자연 생명정치의 작동 방식과 성격을 사유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을 제공한다. 이 지점들은 각각 인간 중심주의, 발전주의 국가, 긍정의 생명정치와 관련돼 있다.

첫째, 필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온 자연의 변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인간-자연 생명정치가 다시금 인간 중심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본다. 힌츨리프 등(Hinchliffe et al., 2016)이 지적하는 것처럼, 생명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누구의 생명이 살 가치가 있는가’이다. 경관 갈아엎기 사례는 방역의 생명정치에서 인간의 생명이 우선 가치가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벚꽃이나 유채꽃은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지만, 이들의 변성이 인간들의 행위 변화를 이끌어 방역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죽음의 대상이 됐다. 경제의 생명정치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식량으로 활용되지 않는 산천어는 죽게 했지만, 상품 가치가 있는 향어나 일부 농작물에 대해서는 신선한 상태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나마 살게 하기 위한 개입들이 이뤄졌다. 특정 비인간 생명을 살게 할 것인가, 죽게 할 것인가의 결정은 이들이 인간을 위한 방역과 경제에서 갖는 역할에 달려 있다. 즉, ‘인간의 부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인간 중심적 판단에 따라 비인간 생명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동물권 및 동물 복지 논의가 확산하면서 동물의 생명이 보호와 관심의 대상으로 빠르게 떠오르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코로나19의 인간-자연 생명정치가 인간 중심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은, 인간-동물(나아가 자연) 관계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인간 행위자라는 동물지리학자들의 지적을 연상시킨다. 스리니바산(Srinivasan, 2013) 등은 동물의 행위성이 축산, 관광, 보전, 방역 등과 같은 인간의 정치경제적 기획에 균열을 가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전복하거나 무력화 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바루아(Barua, 2016)나 최명애(2020)

의 사례 연구는 인간이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선별적으로 취사하고 가공함으로써, 동물의 행위성을 생태관광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인간을 사회적 연결망에 결합하고, 상호 작용의 방식과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촉발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연의 행위성이 드러났지만, 이를 방역과 경제의 연결망에 결합하고, 살림과 죽임을 결정한 것은 인간 행위자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인간-동물의 생명정치적 논의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확장돼 왔으나, 코로나19라는 응급상황이 비인간의 생명을 통제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인간중심적 생명정치를 다시금 등장케 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비인간에 대한 생명정치적 개입의 주체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대표되는 국가 기구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 농가 살리기’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의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실행한 것은 해당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다. ‘경제 방역’이라는 이유로 농가의 상품 판매라는 사적 경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자연의 ‘상품으로서의 생명’을 ‘살게’한 것이다. 국가의 이러한 직접적 개입은 국가 영역이 주도하는 코로나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국가가 자연의 통제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발전주의 국가의 경험 및 관성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2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한국의 자연 통치는 발전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축적 전략, 혹은 헤게모니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왔다(황진태·박배균 2013; 김준수 2019a). 국가 주도의 자연 통치 경험은 탈/후기 발전주의 국가 시대로 여겨지는 현재에도 국가가 환경 통치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낳고 있다. 지역 주민 주도의 생태관광을 실천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 참여를 조직하거나(Choi, 2020),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캣맘들을 불러 모으고 인식 전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이 그 예다(전의령, 2017). 이 같은 정부 영역의 리더십은 정부, 지역주민, NGO,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환경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일반적인 환경 거버넌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Lemos and Agrawal, 2006). 대

신, 국가가 자연 이용의 목표와 방식을 결정하고, 통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다양한 제도적, 담론적 장치를 동원하는 것이다. 최근 국가의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들은 농가의 농산물 판매라는 전통적 자연의 상업화 과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발전주의 국가의 관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굶주리는 동물원 사자에게 먹이를 기부하는 움직임은 지금까지 논의한 주류 생명정치의 외부에서 새로운 인간-자연 관계가 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먹이 기부 운동은 굶주리는 사자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 '개인'들의 자발적 행위로 실천됐다. 이는 보건 안전이나 경제적 부라는 인간적 목적이 아니라, 비인간 동물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것 또한 방역적, 경제적 '합리성' 대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사자의 모습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었다. 이처럼 '생닭 기부 물결'은 기존의 국가 주도형, 인간 중심적 생명정치와 목적 및 전략 면에서 구별되는 생명정치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생명정치는 개별 인간과 개별 동물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 기반해 인간 존재가 비인간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에 '응답'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Haraway, 2008).⁶⁾

정동적 상호작용과 응답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 인간-동물 관계는 로리머와 러더퍼드 등이 제안하는 '긍정의 생명정치(affirmative biopolitics)'의 모습을 보여준다(Hannah, 2011; Lorimer and Driessen, 2013a; Rutherford and Rutherford, 2013). 이들은 푸코의 생명정치가 특정 인간 집단을 구별하고 배제하는 '죽임'의 정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근대 자본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인구의 건강과 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살림'의 정치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 및 비인간 구성원들의 본성과 잠재적 가능성들이

6) 이는 동물을 인간과 같은 '도덕적 존재'로 보고, 법, 제도, 윤리적 규범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종식시키자는 동물 해방 운동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발현될 수 있는 ‘긍정의 생명정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힌츨리프 등 (Hinchliffe et al., 2016)은 긍정의 생명정치를 인간-동물, 인간-자연의 생명정치로 확장해, 인간 중심적이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생명정치, 즉 ‘바이오폴리틱스’를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종이 번성하는 ‘코스모폴리틱스’로 견인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힌츨리프는 이 같은 새로운 ‘인간 너머의 생명정치’의 핵심 전략을 “다른 존재에 정동하고, 정동될 수 있는 능력(Asdal et al., 2016: 25)”⁷⁾에서 찾는다. 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생담 기부 운동이 보여준 정동적 에너지가 향후 한국의 인간-자연 관계에서 긍정의 생명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본다.

5. 결론

지금까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인간-자연 관계가 전개되는 양상을 봄꽃 경관, 동물원, 농수축산물 판매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개한 봄꽃에 접근을 차단하거나, 봄꽃 경관 자체를 제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동물원의 경우,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동물원에서는 새로운 생명 탄생과 시설 재투자가 이뤄졌지만, 민간 동물원에서는 먹이 부족으로 죽거나 굶주리는 동물들이 생겨났다. 동물 카페와 같은 유사동물원은 인수공통전염병 확산의 전초기지로 여겨지면서 폐쇄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출하시기를 놓친 농수축산물들은 비육되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국가 기구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상품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인간-자연 관계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통제’, 혹은 자연의 ‘회복’이라는 이분법적 서사로는 포괄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다. 자연의 생육과 번성으로 봄꽃 축제, 적정 농수축산물 출하시기와 같은 기존의 연결점들에 균

7) 원문: “to be affected and to be affective in an event-ful, differentiating worlds”

열이 생기는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농가 살리기를 위해 새로운 인간들의 개입들이 이뤄지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인간-자연 관계의 형태와 방식 변화는 방역과 경제를 목적으로 한 ‘인간’의 기획과 ‘자연’의 물질적 특성이 서로 얽혀 상호 작용하며 생성된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코로나19를 통한 인간-자연 관계의 재편이 인간의 기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방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봄꽃의 경관을 갈아엎고, 멸종위기종과 같은 일부 동물에 대해서 ‘살림’이 수행되며, 소비와 상품의 최전선에 있는 자연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경제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개입들이 이뤄졌다. 코로나19가 자연의 행위성이 발현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지만, 결국 인간의 경제와 방역을 위해 비인간의 생명을 통제하는 인간중심적 생명정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응급상황’이 인간의 방역과 경제를 위해 비인간 자연과 동물의 행위성을 무력화하고 인간-비인간의 정동적 관계를 차단하는 행위들을 정당화한 셈이다. ‘인간 없는 세상’이나 ‘인류정지’(Rutz et al., 2020)라는 최근의 수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인간의 자연 간섭이 전면적으로 후퇴한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제 구체적인 일상에서 인간의 자연 개입은 계속되며, 때로는 더욱 강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코로나19가 최근의 야생동물 거래 금지 논의 등에서 보듯 야생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반성적으로 성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인간과 밀접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어온 자연물과의 관계에서는 아직까지 성찰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병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인간-자연의 상품화된 관계가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로, 향후 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인간-자연 관계 변화에 대한 탐색은 인류세 이후의 인간-자연 관계가 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자연 통제나, 자연의 역습 또는 ‘인간 없는 세상’과 같은 이분법적 공상과학과는 크게 다를 것임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듯 자연의 생육과 번성이 기존의 인간-자연의 연결점들을 균열히는

한편, 인간의 정치경제적 기획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연에 대한 통제가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의 인간-야생동물 논의가 시사하듯, 기존의 약탈적이고 파괴적인 관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이뤄지면서 다양한 종들의 공생에 대한 모색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간 너머'에 발생한 변화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의 인간-자연 관계가 얼마나 인간중심적인지를 새삼스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비인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코로나19가 인간과 국가를 중심에 놓는 한국 사회의 기존 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동물에 대한 연구가 결국 인간 사회에 대한 연구라는 동물지리학자들과의 오랜 지적과도 상통한다(Wolch and Emel, 1998). 특정 사회에서 동물이 규정되고 사유되는 방식을 탐색함으로써 식민주의, 신자유주의, 국가주의 등과 같은 사회의 성격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비인간 세계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다 심층적,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원고접수일: 2020.08.03

심사완료일: 2020.08.27

게재확정일: 2020.09.08

최종원고접수일: 2020.09.15

Abstract**Anthropocenic Nature in the Pandemic:
Social Distancing and the ‘More-than-human’ Biopolitics**

Jun Soo Kim, Myung-Ae Choi, Buhm Soon Park

The global spread of the COVID-19 has raised an increased attention to the Anthropocene. The outbreak and spread of the COVID-19 is a very Anthropocenic event in the sense that it has brought a planetary catastrophe of pandemic, while offering a preliminary snapshot of “the world without us” caused by widespread lock-down and social distancing measures. While existing work on the COVID-19 has focussed on its health and economic aspects, this paper draws attention to the non-human world affected by the COVID-19. Drawing on recent ‘more-than-human’ studies of political ecology and biopolitics, this paper examines several ways through which human-nature relations have been reconfigured in South Korea amid the COVID-19 and related social distancing. It specifically focuses on nature-based tourism landscape, zoos, and farming. The cases illustrate that human-nature relations have emerged in diverse and sophisticated ways beyond the prevalent dichotomies of the reinforced human control over nature, or the return of nature. While significant decrease of human activities allowed proliferation of non-humans (e.g. blossom of flowers, birth of zoo animals), biopolitical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soon followed to secure public health and capitalist economy. This paper argues COVID-19 engenders an anthropocentric mode of biopolitics that allows increased manipulation of nonhuman lives in the guise of public good.

Keywords: COVID-19, Anthropocene, More-than-human political ecology, biopolitics, human-nature relations

참고문헌

- 김준수. 2018.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국가-자연’관계의 재조정: 감응의 통치를 통해 바라본 도시 비둘기」. 『공간과 사회』, 28(1): 55-100.
- 김준수. 2019a. 「한강의 생산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인간 너머의 물 경관」. 『공간과 사회』, 29(1): 93-155.
- 김준수. 2019b.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을 통해 바라본 인간 너머의 영토성」. 『문화·역사·지리』, 31(3): 41-60.
- 신진숙. 2018. 「환경 저항 서사와 정동적 생태학: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6(1): 139-174.
- 전의령. 2017. 「“길냥이를 부탁해”: 포스트휴먼 공동체의 생정치」. 『한국문화인류학』, 50(3): 3-40.
- 최명애. 2018. 「한국 인문지리학의 ‘동물 전환’을 위하여: 영미 동물지리학의 발전과 주요 쟁점」. 『공간과 사회』, 28(1): 16-54.
- 최명애. 2020. 「비인간 행위성과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의 정치경제」. 『문화·역사·지리』, 32(1): 126-145.
- 황진태, 전민성, 서성훈, 유동현, 최다훈. 2019. 「발전주의적 코스모폴리틱스로서 동물카페」. 『문화·역사·지리』, 31(3): 61-78.
- 황진태. 2019a. 「박정희 정권기 국립영상에 재현된 ‘국가-자연’: 소양강댐을 사례로」. 『지역사회학』, 20(1): 91-118.
- 황진태. 2019b. 「인간 너머의 국가론의 개념화를 위한 시론」.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제2회 대화마당 발표문.
- 황진태·박배균. 2013. 「한국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대한지리학회지』, 48(3): 348-365.
- Anderson, K. 1995. "Culture and nature at the Adelaide Zoo: at the frontiers of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0(3): 275-294.
- Asdal, K., T. Druglitrø & Hinchliffe, S., 2016, "Humans, animals and biopolitics: The more-than-human condition". Routledge.
- Barua, M., 2016, "Lively commodities and encounter valu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4(4), 725-744.
- Burchell, G., Foucault, M, Gordon, C & Miller, P., 1991,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With two lectures by and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oi, M.-A., 2020, "Multiple environmental subjects: Governmentalities of ecotourism

- development in Jeungdo, South Korea” *Geoforum*, 110: 77-86.
- Cloke, P. & Perkins, H., 2005, “Cetacean performance and tourism in Kaikoura, New Zealand”.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 Space*, 23(6): 903-924.
- Foucault, M., 1978, “*The history of sexuality*”. Vintage.
- Fraser, J., 2009. “The anticipated utility of zoos for developing moral concern in children”. *Curator: The Museum Journal*. 52(4): 349-361.
- Hannah, M. G., 2011. “Biopower, life and left politics” *Antipode*. 43(4): 1034-1055.
- Haraway, D., 2008. “*When species me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astrup, K. 2013. “*Anthropology and nature*”. Routledge.
- Heynen, N. 2014. “Urban political ecology I: The urban centur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8(4): 598-604.
- Hinchliffe, S., Bingham, N, Allen, J & Carter, S., 2016. “*Pathological lives: disease, space and biopolitics*”. John Wiley & Sons.
- Lemke, T., Casper & Moore, L., 2011. “*Biopolitics: An advanced introduction*”. NYU Press.
- Lemos, M., & Agrawal. 2006. “Environmental governance”. *Annual Review of Environmental Resources*. 31: 297-325.
- Letzter, R., 2020. “Dramatic effect of coronavirus lockdowns seen from space”. *Live Science*.
- Lorimer, J. & Driessen, C., 2013a, “Bovine biopolitics and the promise of monsters in the rewilding of Heck cattle”. *Geoforum*. 48: 249-259.
- Lorimer, J. & Driessen, C., 2013b, “Wild experiments at the Oostvaardersplassen: Rethinking environmentalism in the Anthropocen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9(2): 169-181
- Maron, D., 2020. “‘Wet markets’ likely launched the coronavirus. Here’s what you need to know”. *National Geography Animals*.
- Nam, J.-Y., 2014, “Free Jedol: The biopolitics of captive dolphin release in South Korea” MSc dissertation, *School of Geographical Science, University of Bristol*.
- Philo, C., & Wilbert, C., 2000. “*Animal spaces, beastly places: New geographies of human-animal relations*”. Psychology Press.
- Pile, S. (2011). For a geographical understanding of affect and emotion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6(4), 603-606.
- Porter, N., 2019, “*Viral Economies: Bird Flu Experiments in Vietna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jan, K. S., 2006. “*Biocapital: The constitution of postgenomic life*”. Duke University Press.

- Rutz, C., Loretto, M.C., Bates, A.E., Davidson, S.C., Duarte, C.M., Jetz, W., Johnson, M., Kato, A., Kays, R., Mueller, T. and Primack, R.B., 2020. "COVID-19 lockdown allows researchers to quantify the effects of human activity on wildlife". *Nature Ecology & Evolution*, pp.1-4.
- Rutherford, P. & Rutherford, S., 2013, "The confusions and exuberances of biopolitics". *Geography Compass*. 7(6): 412-422.
- Rutherford, S., 2013, "The biopolitical animal in Canadian and environmental studies". *Journal of Canadian Studies/Revue d'études canadiennes*. 47(3): 123-144.
- Searle, A., & Turnbull, J. 2020. "Resurgent natures? More-than-human perspectives on COVID-19".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10(2): 291-295.
- Shukin, N., 2009, "*Animal capital: Rendering life in biopolitical tim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rinivasan, K., 2013, "The biopolitics of animal being and welfare: Dog control and care in the UK and India".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8(1): 106-119.
- Whatmore, S., 2002. "*Hybrid geographies: Natures cultures spaces*". Sage.
- Whitehead, M., Jones, R., & Jones, M., 2007. "*The nature of the state: excavating the political ecologies of the modern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Wolch, J. R. & Emel, J., 1998,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Verso.

보고서

- 이형주·최태규·최혁준·황주선. 2020.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 경성문화사.
- 최태규·황주선·이형주·임수빈. 2019. 『2019 전국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보고서』. 경성문화사.

뉴스 기사

- 대구신문. 2020년 4월 27일. "경영난 빠진 수족관에 '먹이 기부' 움직임".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638>
- 연합뉴스. 2020년 3월 8일. "규제 사각 '야생동물 카페' 2년 새 배로, 감염병 매개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6162200004?input=1195m>
- 연합뉴스, 2020년 4월 8일. "틀립축제 취소에도 관광객 몰릴라, 신안군 100만송이 '짜뚝'".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8138900054?input=1195m>
- 이데일리. 2020년 4월 10일. "꽃 구경 오지 마세요 삼척 제주 부산도 유채꽃밭 갈아엎어".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96486625734808&mediaCodeNo=257&OutLnkChk=Y>
- 중앙일보. 2020년 5월 1일. “사자가 뼈만 남았어” 동물원에 생닭 400마리 배달 쏟아졌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040>
- 한겨레. 2017년 10월 23일. “실력없는 동물원, ‘동물 위해 일하는 동물원 돼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5590.html>
- 한겨레. 2020년 4월 9일. “‘코로나 시대’에 야생동물 시장이 왜 위험할까요?”.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ecology_evolution/936299.html#csidxc9c0ebd4d841accadffea2682e4857f
- BBC news. 2020년 4월 29일. “Coronavirus: Wild animals enjoy freedom of a quieter world”. <https://www.bbc.com/news/world-52459487>
- KBS. 2020년 3월 30일. “축제 실패 여파, 산천어 무덤 된 양식장”.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3151&ref=A>
- KBS. 2020년 4월 11일. “축제 취소, 눈물 머금고 툄립 100만송이 싹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818018>
- MBC. 2020년 4월 29일. “굶주린 사자 위한 ‘생닭’ 기부 릴레이”.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748602_32531.html
- NEWS1. 2020년 3월 18일. “우치동물원에 잇따라 새 생명, ‘재규어’ ‘갈색꼬리감기원숭이’”. <https://www.news1.kr/articles/?3877895>
- NEWS1. 2020년 3월 27일. “전주동물원에 ‘잔나비의 숲’ 조성, 멸종위기종 새 식구로”. <https://www.news1.kr/articles/?3888545>
- The New York Times. 2020년 4월 15일. “Zoo May Feed Animals to Animals as Funds Dry up in Pandemic”. <https://www.nytimes.com/2020/04/15/world/europe/germany-zoo-coronavirus.html>
- YTN. 2020년 4월 3일. “막아도 물리는 상춘객, 유채꽃 갈아엎는 ‘초강수’”. https://www.ytn.co.kr/_ln/0115_202004032212581604

기타자료

- NASA Earth observatory. <https://earthobservatory.nasa.gov/images/146362/airborne-nitrogen-dioxide-plummets-over-china> 접속일: 2020년 5월 27일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s://www.mafra.go.kr/sites/mafra/index.do> 접속일: 2020년 5월 27일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접속일: 2020년 5월 27일
- 유튜브 정브르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Ov1v2iptqYMVEwLAIUOhPw>

접속일: 2020년 5월 26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index.do> 접속일: 2020년 5월 27일